

‘지시 불이행’ 총장 징계 의결 ‘논란’

‘단과대 학장 징계’ 조선대 이사회와 총장·교원인사위 이견 인사위 구성 총장 징계 양형 결정...교내 갈등 심화 예상

조선대학교 이사회가 교수 징계 지시를 불이행한 총장 징계를 의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비위 교수 징계를 넘어서 관리·감독자까지 책임 여부를 놓고 이사회와 총장 및 교원인사위원회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교내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조선대에 따르면 조선대 이사회

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지시사항 불이행 등의 사유로 민영돈 총장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사회는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국책 연구 사업을 수주하지 못한 A 교수와 6학기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수업을 거의 하지 않은 B 교수에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 단과 대학 장들에 대한 징계를 학교 측에 요청했

다.

이에 학교 측은 교원인사위원회(위원장 교무처장)를 열어 단과대 학장들의 징계 여부를 논의했으나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징계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사회는 민 총장에게 단과대 학장들의 징계안을 이사회에 올리라고 지시했고, 민 총장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사회는 민 총장이 ‘총장은 학교 운영과 관련해 이사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학교 규정을 어겼다면 민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이사회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민 총장에 대한 징계 양형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학교 측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에 대한 징계를 이사회에 요청하려면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교원인사위원회서 징계하지 않은 사안을 총장이 ‘직권으로’ 이사회에 회부하는 것이라며 이사회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이사회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 교수를 해임했고, B 교수에 대한 징계 양형은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임재만 기자

고려인마을 ‘소심당조아라상’ 수상

광주 고려인마을이 광주YWCA가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수여하는 ‘소심당조아라상’을 수상했다.

31일 고려인마을에 따르면 지난 27일 광주YWCA조아라기념사업회는 우크라이나 피난민 고려인동포의 국내 귀환을 돕기 위해 헌신한 고려인마을에 상패와 상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광주YWCA조아라기념사업회는 지난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향을 떠나게 된 우크라이나 출신 고려인동포들의 국내 입국을 위해 항공권을 지원하며 정부 각 부처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고려인마을의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31일 기준 고려인마을의 도움으로 국내에 입국한 고려인 동포는 540명이 남았다. 마을은 이들 중 광주에 정착한 동포를 위해 월세와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 광주YWCA는 창립 100주년을 맞아 ‘소심당조아라상’을 수여하며 그간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1912년 나주시 반남면 대안리에서 태어난 소심당 조아라 선생은 독립운동가이자 여성 지위 향상과 민주화 운동에 일생을 바친 인물이다. 일제 탄압으로 문을 닫은 광주YWCA와 수피아여고 재건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뒤 광주YWCA에서 총무, 회장 명예회장으로 활동했으며, 광주어머나회, 걸스카우트, 광주여성단체협의회 등을 육성 발전시켜 여성들의 계몽과 권익을 위해 35년 동안 선도적 역할에 앞장섰다.

또한 6·25 직후인 1952년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전쟁고아들을 위해 ‘성민여사’를 설립하고 이듬해는 이들을 위해 3년제 야간중학교인 ‘호남여숙’과 청소년 야학 ‘별빛학원’을 개설했다.

뿐만 아니라, 소외당하는 여성을 위한 계명여사, 사회복지법인 소화자매원 이사장을 맡아 소외된 계층을 위한 복지운동을 이끌었다.



미래의 꿈을 펼쳐라 31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에서 열린 어린이 직업체험 특별전 ‘키자니아 GO! 광주’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미래의 꿈을 체험하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주최한 직업체험은 어린이들이 현실세계를 축소한 도시환경 속에서 119구급대원, 건설코디네이터, 과학수사대원, 수사사, 마술사, 헤어디자이너, 승무원 등 다양한 직업의 역할을 수행해보는 행사다. /김애리 기자

‘학동참사’ 재개발사업, 철거공사 재개 전망

감리자·업체 재선정 추진...동구 안전조건 충족 확인 후 재개 검토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참사’의 재개발 사업지에서 건물 철거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31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최근 철거공사 재개 절차를 문의했다.

담당 지방자치단체인 동구는 해체계획서, 감리자 선정신고서 등 제반 서류와 향후 사무처리를 안내했다.

동구는 서류가 갖춰지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자 회의를 열어 건축물 해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회의에는 조합, 건물 철거공사 원청이

자 재개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신규 선정된 철거업체 관계자와 감리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동구는 사고 발생 직후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으며, 지난 3월8일 조합측의 중지명령 해제 요청에 따라 3월18일 사고 발생 9개월 만에 조건부로 중지명령을 해제했다.

하지만 이 중 8개 동은 보상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허가 접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조합은 이 건물들의 철거 인허가를 받기 위해 동구가 내건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사업 진행 의향을 나타내거나 관련 공문을 제출하지 않았었다.

동구가 제시한 조건은 ▲시공사의 해체 계획 수립 등 안전대책 점검 ▲공사장 동영상 녹화 ▲새 철거업체 선정 후 안전 관련 회의 개최 ▲해체 감리자 안전계획 수립, 현장 배치 근무자 조직도·도급·상주감리계약서 확보 등이다.

법원이 보낸 명령을 내린 참사 현장 4개 필지는 이번 철거공사 재개 대상에서 빠졌다.

동구 관계자는 “재개발사업 정상화보다는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철거공사 재개 허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복기

오늘의 날씨

▶예보 지역 날씨 최저/최고/인

인천	26/31	서울	25/31	대전	25/32	강릉	26/32
전주	26/32	대구	26/31	부산	26/30	제주	27/33
목포	26/31	광주	26/30	여수	25/28	홍산도	26/31

생활정보지수

- 나들이 50 (우산 챙기세요)
- 빨래 20 (잘 마르지 않아요)
- 세차 20 (다음으로 미루세요)
- 운동 60 (심내운동 즐겨요)

지역	강수량(%)	지역	만조	간조
광주	60-30	목포	04:32	09:44
목포	30-60		16:31	21:44
순천	90-60			
여수	60-30	여수	11:06	05:02
			23:35	17:08

지역	시간	기온	풍향/풍속
서해 남부 (풍향/파고)	오전	앞바다 26~30 / 면바다 25~29	남-남서 / 1.0-2.0m
	오후	앞바다 26~30 / 면바다 25~29	남-남서 / 1.5-2.5m
남해 서부 (풍향/파고)	오전	앞바다 26~30 / 면바다 25~29	남-남서 / 1.5-3.0m
	오후	앞바다 26~30 / 면바다 25~29	남-남서 / 1.0-2.0m

주간날씨	전라(광주)	서울경기(서울)	강원영동(강릉)	충청(대전)	경상(대구)	제주(제주)
8월 2/화	☁ (26/32)	☁ (26/31)	☁ (27/33)	☁ (26/32)	☁ (26/34)	☁ (27/33)
3/수	☁ (25/33)	☁ (26/33)	☁ (27/34)	☁ (25/33)	☁ (26/35)	☁ (28/33)
4/목	☁ (25/33)	☁ (26/32)	☁ (27/34)	☁ (25/33)	☁ (26/35)	☁ (26/34)

▶날씨안내 : 국민뉴스1131

전남교육청, 내년도 공립 중등교사 선발

21개 과목 총 315명 예정

전남도교육청이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2023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선발예정과목과 인원, 시험일정 등을 사전 예고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시험에서 21개 과목(특수-비교과 포함) 총 315명(장애인 포함)의 교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 예고는 개략적인 선발예정 과목 및 인원을 안내한 것으로, 최종 선발과목과 인원, 시험 세부 사항은 10월5일 시험행계획 공고로 통해 발표된다.

10월5일 공고 후 10월17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채용시스템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11월26일 17개 시·도가 동시에 1차 필기시험을 치른다.

전남교육청은 미래교육체제 대비책 마련과 장기적인 교원 수급 안정화를 위해 선발인원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장애인 교사 선발 활성화를 위해 2022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선발 과목 중 몇 개를 지정해 장애교사를 선발하는 방식을 개선해 모든 과목에서 장애인 교사를 선발하는 장애인 교사 선발 총정원제를 실시하고 있다.

/임재만 기자

“광주 학교 방사능 재난 훈련 경각심 부족”

광주 한 시민단체가 광주 초·중·고교의 방사능 재난 훈련에 대한 경각심을 지적하고 나섰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31일 “광주시교육청 재난대비훈련 실적 결과 광주 58개 초·중·고교의 방사능 재난 훈련은 전체 평균 0.12%남짓”이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지난해 기준 학교 당 평균 6.4회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한 것에 비해 방사능 재난 훈련은 제대로 실시하지 않

고 있다”며 “한빛원전에서 원자로 제어봉 작동 미숙, 무면허 직원 운전, 발전소 균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학교 구성원들이 방사능 재난에 경각심을 갖고 상황 발생 시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에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김단인 기자

대광새마을금고회관

더 멀리, 더 큰 미래를 향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대광새마을금고 이사장 안근원

MG 대광새마을금고 | 본점 | 062)222-5851 | 서남지점 | 062)227-1532 | 지산지점 | 062)222-1431